Daishin 증권

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Morning Meeting Brief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이란 리스크발 패닉 셀, 코스피 5000 선 지지력 테스트

- 이란 사태 장기화 우려, Risk-Off 심리 확대
- 역사상 8번째 서킷브레이커 발동, 최악의 상황을 선반영
- 전 업종 약세, 대형주를 중심으로 패닉 셀(Panic Sell) 양상 심화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y

공포의 정점이 저점이었던 역사. 서킷브레이커와 P/E 8 배의 시사점

- 서킷브레이커, 뒤집힌 이란사태 전망과 아시아 경제 영향 우려에 급락
- 코스피 서킷브레이커의 통계, 공포의 정점이 저점이었던 역사
- 핵심은 유가, 최악의 상황을 선반영한 뒤 실적을 근거로 한 회복 전망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Initiation] 하나머티리얼즈: 최대 실적이 다가온다

- 공급업계의 설비투자와 가동률 상향으로 영업환경 개선 기회를 맞이
- 선단공정 비중 증가, 고객사 및 용용처 확대 효과가 성장을 견인할 것
- 목표주가 78,000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매수의견 제시.

류형근. hyungkeun.ryu@daishin.com

Strategy

이란 리스크발 패닉 셀, 코스피 5000선 지지력 테스트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이란 사태 장기화 우려, Risk-Off 심리 확대
- 역사상 8번째 서킷브레이커 발동, 최악의 상황을 선반영
- 전 업종 약세, 대형주를 중심으로 패닉 셀(Panic Sell) 양상 심화

이란 사태 장기화 우려, Risk-Off 심리 확대

– 이란 지정학적 사태의 장기화 우려가 확산되며 시가 급락을 이어가는 중

– 이란 혁명수비대는 강한 반격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에 미사일 공격 위협 지속. 현재까지 10척 이상이 피격되었다고 주장. 사실상 선사들의 통행이 봉쇄, 현실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던 호르무즈 해협 폐쇄 현실화

–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보험과 미군의 호위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통행 재개 여부는 미지수,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재개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

– 유가 공급차질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 영향 불가피. 특히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증시를 Underperform

– 야간 78달러 선에 도달했던 WTI 유가는 75달러 선을 유지. JP모건은 경제 영향이 불가피한 데드라인을 '25일'로 제시, 한국은 208일치의 비축유 보유

역사상 8번째 서킷브레이커 발동, 최악의 상황을 선반영

– 코스피는 역사상 8번째 서킷브레이커 발동, 코스닥은 12번째 사례. 과거 7번의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사례에서 2009년 9월(닷컴버블)과 2020년 3월(코로나 팬데믹) 제외 다음날 주가 반등, 닷컴버블 제외, 전체 사례에서 42거래일 뒤 낙폭회복

– 현 상황의 해소가 가시화되기 전까지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현재 주가는 최악의 상황을 선반영한 수준으로 판단. 오늘 코스피 저점인 5,059.45pt는 선행 P/E 8.06배로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강한 지지력이 나타났던 구간. 사태 완화 시 밸류에이션과 실적전망에 근거한 회복 예상

전 업종 약세, 대형주를 중심으로 패닉 셀(Panic Sell) 양상 심화

– 2026년 코스피 상승을 주도한 반도체, 자동차 등 대형주 차익실현 매도 집중

반도체: 삼성전자(-11.7%), SK하이닉스(-9.6%), 이오테크닉스(-14.2%)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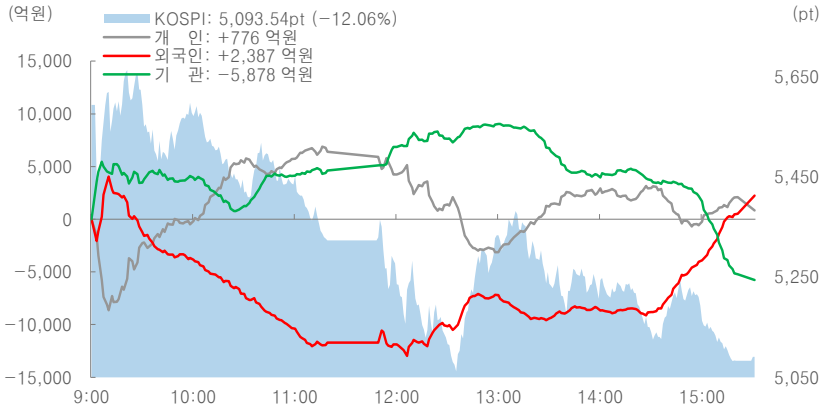
자동차: 현대차(-15.8%), 기아(-14.0%), 현대위아(-19.7%) 등

– 전일 상승 업종인 방산, 해운/정유 업종으로도 하락이 전이되는 투매양상

방위산업: LIG넥스원(-6.4%), 한화에어로스페이스(-7.6%) 등

해운/정유: HMM(-16.3%), 팬오션(-16.9%) 등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Strategy

공포의 정점이 저점이었던 역사 서킷브레이커와 P/E 8배의 시사점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서킷브레이커, 뒤집힌 이란사태 전망과 아시아 경제 영향 우려에 급락
- 코스피 서킷브레이커의 통계, 공포의 정점이 저점이었던 역사
- 핵심은 유가, 최악의 상황을 선반영한 뒤 실적을 근거로 한 회복 전망

서킷브레이커, 뒤집힌 이란사태 전망과 아시아 경제 영향 우려에 급락

KOSPI는 이란발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급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다.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의 긴장이 사태 초반 전망과 다르게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으며 시장은 '에너지 공급망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반영하기 시작했다. 유가 상승이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 달러인덱스 상승을 유도하여 통화정책 지연과 경제 펀더멘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동산 원유 및 LNG 의존도가 높은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영향 우려를 반영하며 주가 하락이 컸다. 그간 AI 산업 성장에 힘입어 급등했던 반도체부터, 대형주, 방위산업까지 전 섹터에서 투매성 매물이 쏟아졌다.

코스피 서킷브레이커의 통계, 공포의 정점이 저점이었던 역사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이하 CB)가 발동된 것은 2024년 8월 이후 약 19개월 만이며 역사상 8번째이다(코스닥은 12번째). 역대 코스피 CB 사례는 대체로 시장의 심리적 저점 부근에서 나타났다. 닷컴 버블의 연장선인 2000년 9월과 코로나 팬데믹 당시 20년 3월 13일 및 19일 연이어 발동된 CB의 앞선 13일 사례를 제외한다면 증시가 다음날 일제히 반등했다. 평균 32거래일 이후에 9.9% 반등하며 서킷브레이커 당일의 낙폭을 회복했으며 +60거래일을 전후로 20% 가까운 반등을 시현했다. 이는 패닉 셀 이후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더하여 오늘(3월 4일) 기록한 저점 5,059pt는 P/E 8.06배 수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한다면 코스피의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구간이다. 금융위기 이후의 최저점 기록도 2011년(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팬데믹 당시 7.5배 수준이다. 즉, 이란 전쟁의 장기화가 경기침체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8배 이하의 PER 밸류에이션은 낙폭과대 구간이다

핵심은 유가, 최악의 상황을 선반영한 뒤 실적을 근거로 한 회복 전망

지정학적 사태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금융시장의 가늠자는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 지속 여부가 될 것이다. 공급 전망을 반영한 유가를 주목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재 WTI 유가는 75달러 선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과거 오일쇼크와 같이 100~150달러 구간으로 급등한다면 경기 충격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논할 수준은 아니다. JP모건은 경제 영향이 불가피한 데드라인을 25일로 제시했으며 한국 재경부는 긴급회의를 통해 208일치의 전략 비축유를 보유 중인 것으로 밝혔다. 사태 5일차에 접어든 현재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인 25일 이상의 장기화를 논하기는 이르다. 사태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미국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와 인플레이션을 관리해야 한다. 이란에게도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지속은 혁명수비대 스스로 자금줄을 차단하는 자충수이다.

사태 해소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3월 이내에 이란과 미국이 협상 및 출구전략을 찾아간다면 증시는 실적과 펀더멘털을 근거하여 회복, 최근의 EPS 상승 추세와 밸류에이션에 근거한 반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Initiation

하나머티리얼즈 (166090)

최대 실적이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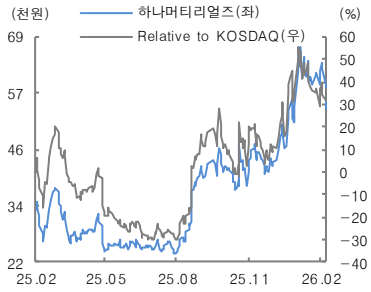
류형근
hyungkeun.ryu@daishin.com
서지원RA
jiwon0.seo@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신규
6개월 목표주가	78,000 신규
현재주가 (26.03.04)	53,900 반도체업종

- 공급업계의 설비투자와 가동률 상향으로 영업환경 개선 기회를 맞이
- 선단공정 비중 증가, 고객사 및 용용처 확대 효과가 성장을 견인할 것
- 목표주가 78,000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매수의견 제시.

KOSDAQ	978.44
시가총액	1,066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2%
자본금(보통주)	10십억원
52주 최고/최저	66,900원 / 23,6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34억원
외국인지분율	18.24%
주요주주	하나마이크론 외 4 인 44.53% Tokyo Electron Limited 13.78%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4.8	24.2	100.7	92.2
상대수익률	0.0	18.0	65.2	44.9



목표주가 78,000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유례없는 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 속, 공급업계의 설비투자와 가동률 상향이 본격화. 반도체 소재/부품의 경우, 증익 사이클이 2027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영업 환경의 개선 속, 최대 실적 Rally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단기 실적 (4Q25, 1Q26) 또한 주요 국내 고객사의 실리콘 부품 재고 축적 수요 (미중 분쟁 대비)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 목표주가 78,000원 (Target P/E: 12m Fwd P/E 상단인 23배 적용)으로 커버리지를 개시.

실리콘 부품, 본격화될 수요의 확장세

실리콘 부품 매출액은 2025년 2,417억원 (y-y +11%)에서 2026년 2,893억원 (y-y+20%), 2027년 3,223억원 (y-y +12%)으로 증가할 것. 선단공정 비중 확대에 따른 부품 교체주기 축소, 고객사/응용처 확대 효과가 주요 배경.

1. 선단공정 비중 확대, 줄어들 부품 교체주기

선단공정 비중 확대 속, 부품 교체주기 축소 전망. 2026년의 경우, DRAM 선단공정 투자가, 2027년의 경우, NAND V10 투자가 수요 성장을 견인할 것.

- NAND의 경우, V7-V9은 하나머티리얼즈에 있어 보릿고개. 주요 일본 고객사의 Etcher 시장 점유율이 다소 부진했던 시점.

- V10부터 주요 일본 고객사의 점유율 회복을 기대. 극저온 Etcher 출시 효과. P와 Q의 동반 성장을 이끌 변화 (공급 부품 수: 4개 품목으로 증가).

2. 고객사 및 응용처 확대

1) 고객사 확대: 북미 고객사향 매출 부진으로 2023-2025년의 성장세가 둔화. 공급망 안정화를 목적으로 북미 고객사로부터의 오더가 개선될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고, 해외 End User향 물량에서 성장 기회를 지속 확인.

2) 응용처 확대: 로직/파운드리향 매출 비중의 경우, 그간 10% 내외를 기록. 공정 미세화 속, 실리콘 부품의 침투율 확대 기회 지속 열릴 것이라는 판단.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23A	2024A	2025F	2026F	2027F
매출액	234	252	278	324	363
영업이익	41	43	51	78	97
세전순이익	40	41	48	80	99
총당기순이익	34	32	38	63	78
지배지분순이익	34	32	38	63	78
EPS	1,731	1,606	1,917	3,194	3,937
PER	29.0	14.3	22.5	13.5	10.9
BPS	20,235	17,894	22,859	25,809	29,502
PBR	2.5	1.3	2.4	2.1	1.8
ROE	9.8	8.4	9.4	13.1	14.2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하나머티리얼즈,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